



‘송도 IT밸리’ 구상 구체화에 우려감 증폭...

새 정부 조각에서 ‘송도 IT밸리’와 관련 된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대덕밸리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대전시와 대덕밸리벤처연합회(회장 백종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대전시와 연합회, 대학, 출연연, 연구단지 과학기술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대덕밸리 과학특구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워킹숍을 개최했다.

대덕밸리가 송도 IT밸리 조성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은 국가의 한정된 재원으로 새로운 지역에 집중 투입될 경우 IT 벤처기업의 메카인 대덕밸리로서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벤처업계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추진위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조금씩 결실이 보이는 대덕밸리의 강점과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추진위는 이밖에 최근 아시아권에서 유행처럼 조성되는 ‘R&D’ 허브의 경우 최소한 10여년에 수십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점 등을 들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덕밸리의 K 과학자는 “싱가포르판 R&D 허브 계획은 앞으로 15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2001년 착공했다”면서 “현재 허허벌판인 송도에 IT밸리를 만드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합당한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관계자는 “대덕밸리는 30년간 30조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이제 조금씩 研-産-學 집적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지역을 애써 외면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덕밸리 중견과학자들의 모임인 대덕클럽(회장 신성철)은 오는 13일 롯데호텔대전에서 ‘대덕밸리의 연구개발 특구로서의 의미와 비전’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회장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송도 IT밸리 조성 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대덕밸리에 대한 연구개발특구 계획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덕밸리인들이 이렇듯 우려감을 나타내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1기 조각에 송도 IT밸리와 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신임 정통부 장관은 수도권 IT밸리의 발안자로 알려져 있으며, 신임 과기부 장관은 해당 지역 출신이며,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정통부 장관과 서울대 동기로 알려졌다.

대덕넷 구남평기자 flint70@hellodd.com

■ 대덕 신제품/신기술 ■

한비전, ‘3D 스택형 구조 영상카메라’ 개발



1000만화소 이상의 고해상도이면서 3차원 화소배열을 통해 하나의 소자만으로 총천연색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개발됐다. 대덕밸리 산업용 카메라 전문 벤처기업 한비전(대표 유상근)은 세계최초로 3차원 스택형 구조의 산업용 영상카메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X3 카메라 개발플(DDP: Design Development Platform) 제품은 미국 Foveon社에서 만든 3차원 스택형 구조인 CMOS영상소자(X3-F7)를 사용해 카메라를 직접 제작하려는 기업 또는 연구소에서 보다 쉽게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용 장비다.

이번 제품은 기존 카메라 방식과 달리, 빨강·초록·파랑 등 각 파장 대역을 위한 영상소자층이 실리콘 웨이퍼에 수직으로 적층된 ‘3차원 스택형’ 구조로 개발된 것이 특징이다.

방송용 카메라 등에서 총천연색을 얻으려면 분광기와 영상소자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데 이 기술을 적용하면 영상소자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카메라는 해상도가 1000만 화소급 이상에 달하며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색상 재현성에 대해서도 기존 반도체 영상소자보다 매우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